기상청	동정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9. 8.(월) 16:00 배포 2025. 9. 8.(월) 16:00

이미선 기상청장, 강릉 가뭄 재난 현장 방문

- 가뭄 재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기상정보 총력 지원

이미선 기상청장은 9월 8일(월),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근일 강원지방기상청장이 동행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이형섭 강릉지사장으로부터 오봉저수지의 저수 현황과 용수 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올해 여름철(6~8월)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28.4%(187.9㎜)이며, 4월 19일 이후 143일째 기상가뭄이 지속 중인 가운데 강릉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일 현재 12.4%에 불과하다.

이미선 청장은 "지자체를 비롯한 물관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기상지원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단·중기 예보, 기상가뭄 통계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상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강릉 가뭄 재난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돈영 (033-650-0220)
		담당자	주무관	김다혜 (033-650-02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강릉 가뭄 재난 현장 방문 사진

| 강릉 오봉저수지 방문 |
(왼쪽 세 번째 이미선 기상청장)

| 강릉 오봉저수지 방문 |
(가운데 이미선 기상청장)